

내년 1월 익산사랑상품권 첫 발행

충전식 카드형 익산사랑상품권 100억원 발행 5% 할인율, 지역 소상공인 점포서 사용 가능

익산시가 내년 1월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첫 발행한다.

시는 사용 편리성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역화폐를 종이카드는 아니지만 충전식 카드형으로 발급할 계획이며 외부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형태의 정액형 상품권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카드형은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에 금액을 충전

해 사용하거나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카드결제 가능한 익산지역 소상공인 점포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집포, 준대규모집포(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시는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소 할인율을 5%로 적용하고 첫 출시 및 명절에는 10% 특별할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구매하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이내로 연회비와 발급수수료가 없으며 사용내역을 실시간 조회하거나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 혜택 등이 있다. 익산사랑상품권 카드 플랫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주)KT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1순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0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평가 위원회를 거쳐 이 같이 선정했으며 이달 초 제안내용과 가격 등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지역화폐 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익산의 지역적 특색과 지역화폐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독창적이면서 기억하기 쉬운 익산사랑상품권의 공식 명칭을 조만간 공모할 예정이며 읍면동, 소상공인, 각 학교, 시민 등을 대

상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창구 경제관광국장은 "그동안 익산시민의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왔고 앞으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소통 행정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익산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란 자급의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화폐로 지역화폐 발행은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익산=정영원 기자



군산시가 30~50대 체중관리가 필요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주부건강플러스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주부 건강 플러스 프로그램 성료

군산시보건소, 총 23회차 진행 호응 속 마무리

군산시가 30~50대 체중관리가 필요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주부건강플러스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 12일 시 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따르면 서부권(소룡·미성·산북동) 30~50대 체중관리가 필요한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건강플러스! 8주 완성 명품스킨 찾기' 프로그램을 3회기 총 23회차 진행해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체중 유지 및 감량을 위해 ▲사전 기초검진 및 체력검사 ▲사전·사후 체성분 검사 ▲외부 운동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에어로빅 신체활동 ▲스텝박스를 이용한 유산소 및 근력운동 ▲식사일지작성 후 영양상담 ▲저칼로리 건강밥상 조리실습 진행 등

다양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여러 운동에 도전했지만 포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체중도 감량하여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조리실습을 통해 저지방이면서 영양은 가득한 식단을 알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했다.

참여자들의 큰 호응속에 프로그램 운영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주부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구성된 산소미인(산북·소룡·미성동 사람들) 주민 건강동아리에서는 신규 동아리 회원을 추가모집하여 건강체조, 탁구, 뜨개질 모임 등 건강문화 활동과 함께 건강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유치 제안

전북테크노파크, 의료원 설립 및 유치 타당성 용역 추진

익산시가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설립 및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는 치유·힐링 인프라 구축방안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익산시의회에서는 국립희귀질환의

료원 설립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등에 익산시 유치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사업비 3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이 들어서면 연관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의료 및 연구인력 1000여 명을 포함해 2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

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연구기관 신설의 최적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기관 유치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은 희귀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희귀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진료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관내 농가 대상 농작업 안전마를 모델 육성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농작업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서수면 마포마을을 '농작업 안전마을 모델'로 육성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과 오경재 교수를 초청해 매주 목요일 6회에 걸쳐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고추 수확운반차, 농작업 안전장비 등을 마포마을 농가 30명에 보급했다.

그동안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질환과 대형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어 농작업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과 재해발생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농작업상 여러 문제들로 인해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위험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정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도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과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 내달 20일까지 정례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12일부터 12월20일까지 39일간 개최한다.

12일 시의회는 제22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정지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보호관할 대상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형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군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조경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업무무체류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간담회,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6일

까지 그동안 접수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의 주요현안사항과 추진사업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펼칠 방침이다.

이어 28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시에서 제출한 2019년도 마지막 추경과 2020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재해예방 동산천 정비사업 추진

총 사업비 32억원 투입... 복개구간 철거·비탈면 보호시설 설치

익산시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전하기 위해 응포면 맹산리 일원 동산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이번 사업에 대한 설계검토를 마쳤으며, 토지 손실보상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르게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1km의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유수의

범람에 따른 물가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보호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재해예방은 물론 하천을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정비해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가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주요 지역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 총력

군산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및 AI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가축방역 상황실과 2개소의 거점소독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 소독차 2대와 공동방제단 소독차 1대를 이용해 농장 출입구 및 주변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돈농가에는 소독약품 5톤, 멧돼지 기피제 300포를 배부했으며, 생식회 30톤을 공급해 농가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이후 18명으로 구성된 멧돼지 포획단이 지난 7일까지 야

생멧돼지 22마리를 포획했다.

특히 시는 돼지고기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에 따라 군산시 공무원이 한돈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돼지고기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는 등 한돈 농가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관내 우제류 5만 6,000여두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해 100% 접종 완료했다.

또 철새가 본격 남하하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금강하구둑 인근 철새도래지 도로변을 살수차를 이용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구독 · 광고문의 288-9700